

캄보디아 주거시설 거주 청소년의 직업욕구

박보윤, 박아경, 문현주(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1. 연구목적

캄보디아는 1인당 국내총생산 GDP 2,399\$의 극빈 국가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불안으로 민생이 파탄난 국가이다. 1973년 킬링필드 사건으로 인하여 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00만명의 사람들이 살해 되었고, 이는 인구의 50%가 20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이라는 기이한 인구구성 분포를 보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앞으로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가 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주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기초교육은 다른 제3세계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극히 열악하며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청소년들이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즉, 이들은 발달과정상 미래의 삶을 계획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제공받아야 할 직업 및 진로탐색에 대한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회와 직업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교육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생존을 위해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캄보디아 청소년들의 직업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프놈펜지역의 청소년주거시설 두곳을 편의표집하여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되었다. 두곳의 주거시설은 남학생주거시설거주자에서 17명, 여학생주거시설거주자에서 24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캄보디아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배포하면서 연구목적을 설명하였고 시간을 충분히 준 이후에 수거하였다.

3. 주요 결과

직업교육 경험 유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35명의 학생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직업교육 참여 희망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41명의 모든 학생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희망하는 직업육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묻는 설문에는 총 41명의 학생 중 37명이 응답하였는데, 사무직 관련 업무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이 9명, 전기·전자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학생이 5명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을 제시한 학생도 15명에 달하였는데 이들 중 8명의 학생이 선교 교육을 희망하였다. 이는 주거시설 기관장인 선교사의 역할이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의사, 간호사, 관광가이드, 사회지도자, 목축업과 관련된 직업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 등 다양한 내용의 직업 육구를 표출하였다.

4. 결론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의 주거시설 거주 청소년은 직업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직업교육을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무직, 전자·전기기술직, 선교교육, 간호, 관광가이드 등의 직업군에 대한 교육욕구를 시사하였다. 이는 캄보디아의 현재 산업구조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나 연구의 대상자가 프놈펜 지역의 주거시설에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